월/요/광/장

정 찬 용

‘자식농사’가 제일 큰 농사라는데

몇 년 전 지방 어느 대학, 시골 논밭 사이를 지나 산비탈에 아담하게 위치한 캠퍼스를 방문했다. 몇 가지 특색을 발견했다. 우선 건물들이 나지막해서 주변 산세나 경관과 잘 어울렸다. 학교 관계자들과 교정을 걸으면서 만난 학생이나 직원들의 표정도 매우 밝았고 인사도 잘 했다.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총장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가을 하늘과 잘 맞아요!” “이발 하셨네요? 헤어스타일이 멋지십니다.” 등등 자연스러운 인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학과의 명칭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다. 무얼 가르치고 배우는지 단박 알 수 있었다. 취업률도 아주 높았다. 비결을 물었더니 실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밝고 환하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잘하는 것도 비결 중 하나라고 한다. 인턴사원으로 4~5개월 근무한 졸업예정자들이 회사에서 귀염을 받아 견습을 마치면 곧 취업으로 연결된다고 한다.

우리 동네 대학생들이 대기업이나 건실한 중소기업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다. 공무원시험이나 공기업 취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우선 서류전형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지방대학, 더구나 전라도의 대학이라는 약점에다 대다수가 외국어실력이 별로이기 때문이다.

면접점수가 신통찮다는 것도 문제다. 면접관에게 적극적,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쩐지 주눅이 들어 보인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렇고 그런 별 볼일 없는 대학생’이라는 패배적 생각을 없애고 ‘우리도 뚝심 있는 기둥감’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기업에서 선호하는 사원의 기준도 바뀌고 있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명문고와 명문대를 나오면 일을 잘할 것이란 사고방식에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조직의 결속에 앞장서는 사람 쪽으로 가고 있다. 우수 인재들은 소속감이 약하기 쉽다. 더 좋은 조건으로 유혹받고, 더 우수한 사람으로 평가받고자 회사 떠날 궁리를 많이 한다. 같이 어울리기보다 혼자 잘난 척하기 십상인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서남해안포럼은 우리 지역을 ‘버려진 땅’에서 ‘남겨둔 땅’으로 바꾸는 첫 디딤돌로 ‘신 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으면서 ‘무등아카데미’라는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목표는 Competence(실력), Character(품성), Commitment(헌신)의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자는 것이다.

매주 이틀씩 한 곳에 모여 45주 동안 문제 파악, 조사 기획 등 바로 회사에 투입해도 일을 척척할 수 있는 기업 실무와 소통과 발표력을 키우는 발성연습, 한·중·일 동남아 한자문화권과의 교류에 대비하는 한자교육에 집중했다. 120권의 고전 명작을 읽혀 교양을 쌓게 하고, 영아원·양로원 등 불우한 이들과 함께하고 환경 살리기에 동참하여 보다 나은 품성을 갖도록 노력했다.

성공한 기업가들을 모셔 특강을 실시했다. CEO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수요원들의 헌신이 눈에 돋보였다. 한달간 현장실습을 통해 직장인들이 갖춰야 할 상하관계와 시간관리능력도 배양시켰다. 3년 동안 이 과정을 마친 40여명은 어디에 내놔도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뚝심 인재’로 성장했다.

초·중·고·대학의 정규과정을 통해 기본적 역량을 갖춘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지방대학은 물론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을 불어 넣는 노력을 제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가, 대학 관계자들이 모양새 있는 틀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우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에게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가르쳐서 얼마만큼의 뚝심을 쌓게 했다는 설명과 함께 이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대들보 노릇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발전도, 문화창달도, 사회적 통합도 결국 사람이 해낸다. 실력 있고 품성 바르고 헌신적인 아이들을 키워내면 우리 동네는 ‘버려진 땅’에서 ‘남겨둔 땅’으로 변화한다. 옛 어른들이 ‘농사 중에 제일 큰 농사는 자식농사’라 했던 말이 요즈음 더욱 절실하게 와 닿는다.

〈현대기아차 인재개발원 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최 인 규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doubt)

지난 1992년 11월 서울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술집 여종업원이 살해되었다.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그 전날 여관에 함께 투숙한 김모 순경. 그는 “아침 7시경 여관에서 나왔다가 10시경 돌아가 보니 피해자가 살해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다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혐의를 벗기 어려우니 자백을 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으라”는 동료 경찰관의 설득에 못 이겨,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살인범으로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그 무렵 진범이 잡히는 바람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이처럼 형이 집행되기 전에 진범이 잡히는 경우는 매우 운이 좋은 경우다.

청소부 배모씨는 고등학교 숙직실에 침입해 강도살인을 한 혐의로 지난 1974년 5월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사형이 집행된 후 붙잡힌 공범에 의해 뒤늦게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배씨는 공범과 함께 고등학교에 따라 들어가 운동장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 잠들었고, 숙직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공범이었던 것이다.

최근 이 지역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민참여재판 사건 등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것을 놓고 일부 우려하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지적은 경청할만하다. 그러나 앞의 오판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문제이다. 피고인이 일시 범행을 자백한 사건에서도 오판이 없지 않은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는 유죄(guilty)가 아닌 것(not guilty)을 말할 뿐,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innocent)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무죄 판단은 확률상 어느 쪽의 가능성이 더 높은가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이 들 때에만 유죄를 선고하고 그러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정신이기도 하다.

1957년에 만들어진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12 ANGRY MEN)’은 무죄의 결론에 이르는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doubt)’의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버지로부터 학대받던 소년이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 불가피하다.

증거가 명백하므로 당장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배심원들이 토론과정에서 그 증거들에 대해 하나 둘 의심을 품게 되고, 결국 처음에 유죄 11명, 무죄 1명으로 시작된 배심원의 표결은 유죄를 주장하던 배심원들이 ‘나도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I have a reasonable doubt now)’라고 고백하면서 마침내 만장일치 무죄로 결론을 맺는다.

재판은 권리구제의 마지막 절차이다. 재판이 당사자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면, 이성에 기초한 분쟁해결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범죄혐의를 인정해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유죄의 확신’이 필요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판사·공보관〉

기 고

유 광 종

‘쑥대머리’의 국창 임방울을 추억하며

고단한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 나들이를 하다 보면 어둠 속에서 득음을 위해 소리를 다듬는 가객의 구성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행운이 가끔 찾아온다. 비록 지음(知音)도 귀명창도 아니지만 걸음 멈추고 소리에 푹 빠질 때면 온몸과 정신을 온전히 휘감아 치는 소리에 자연스레 장단을 맞추고 추임새를 넣게 된다.

타지 사람들이 남도 음식은 무조건 맛있고 남도 사람은 모두 소리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태생이 남도 사람인지라 소리를 저절로 아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곧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판소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전설의 명창 임방울 선생이 있기에 가능했다.

우리 고장 출신 임방울 선생과 ‘쑥대머리’는 불가분이다. 쑥대머리는 임방울 선생을 상징하는 소리이자 선생의 출세작이다.

쑥대머리는 춘향이가 옥중에서 이몽룡을 그리며 비감한 심정을 토로하는 춘향가의 한 대목이다. 젊은 임방울은 이 대목으로 일제 강점기 설움을 온몸으로 겪었던 민초들을 달랬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음인 청구성(맑고 깨끗한 음)에 수리성(허스키하고 약간 탁한 음)을 더한 선생의 소리는 청중의 열광과 추임새를 불러냈다. 구름처럼 몰려든 관객의 떠나갈 듯한 박수소리 때문에 칠창(七唱), 팔창(八唱)까지 소리를 해야 했던 임방울 선생의 출현은 조용필이나 서태지의 등장보다 더 대단한 것이었다.

임방울 선생의 소리로 나라 잃은 설움과 궁핍한 생활에 지친 맺힌 백성들은 웃고 울면서 삶의 애환을 달랬다. 임 선생은 “소리는 대중의 곁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화려한 무대보다는 시골 장터나 강변의 모래사장을 즐겨 찾았다. 서민들의 언어로 민초들의 삶의 질곡을 속 시원하게 표출해 내기 위함이었다.

19세기 판소리 가객들에게 쏟아졌던 갈채가 사라지고 난 후에도 고독하게 판소리를 지켜내며 핍박받은 민족의 한을 판소리로 풀어내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선생을 오늘날 사람들은 명창보다는 ‘국창’이라고 부른다.

이런 선생이 우리 고장 출신이라는 것은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광주의 큰 자부심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진정한 소리꾼 임방울 선생의 위대한 예술 혼을 계승 · 발전시켜 고스란히 후손에게 물려 줄 역할이 이제 우리 세대의 몫으로 남아 있다.

제2, 제3의 임방울을 찾기 위한 ‘임방울 국악제 전국대회’(22~24일·광주문화예술회관 일원)도 이런 맥락에서 열리는 행사다.

판소리의 본고장 광주에서 열리는‘제16회 임방울 국악제’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국악경연대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광주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행사는 ‘쑥대머리’와 ‘호남가’로 판소리에 한 획을 그은 임방울 선생의 삶과 국악세계를 조명하여 전통문화의 계승과 더불어 우리 광주가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젊은 임방울을 고대하는 이 가을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넉넉하다. 〈광주시 문화예술과장〉

퀵서비스 오토바이 완충장치 떼내면 위험

대학을 졸업한 동생이 2년 가까이 취업을 시도하다가 최근 포기하고 퀵서비스 택배를 시작했다. 택배회사에 조합원으로 등록해 일감이 들어오면 배달 서비스를 하고, 없으면 하루 종일 일감을 기다린다.

동생이 얼마전부터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건강한 젊은이가 갑자기 허리가 아픈지 이해가 안됐는데 그 원인을 알고서는 마음이 아팠다. 오토바이에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완충장치가 있다. 그런데 퀵서비스 종사자들은 이 완충장치 때문에 물건을 많이 싣지 못하자 이를 떼어내거나 무디게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가 받는 충격이 운전자의 허리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장시간 택배를 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통증이 생긴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언제쯤 젊은 미취업자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안타깝고 속상하다. ▲이충한·광주시 남구 구동

전통주도 와인처럼 ‘문화’로 육성하자

전남지역은 복분자가 많이 생산된다. 또 각 지역별로 전통 곡주도 많다. 복분자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성분이 있고, 쌀로 빚는 곡주(동동주 등)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기능을 돕는다고 한다. 우리 전통주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전통주는 와인과 비교해 저평가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통주의 판매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 와인과는 대조적으로 갈수록 소비가 줄고 있다.

우아한 모임에는 어김없이 축하주로 와인이 등장하고 기업체 사장들은 와인 공부에 여념이 없다. 신문에는 와인을 모르면 성공할 수 없다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다. 반면 우리 전통주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러다간 자칫 우리 전통주는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

최근 전통주를 제대로 육성하자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농촌이나 정부에서 이런 노력의 중요한 요소로써 전통주를 그냥 마시는 술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인식될 수 있게 홍보하고 마케팅 해보자.

▲나재필·광주시 서구 벽진동

사 설

옛 도청별관 ‘보존 논란’ 장기화 안 된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유적지인 옛 전남도청 별관의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 걱정이다. 5월단체들이 별관의 보존을 요구하며 4개월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화전당 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갈등이 장기화되면 문화전당 2012년 개관이 흔들릴 수 있다. 본관 등 5개 보존건물의 리모델링 절차는 전면 중단됐고 문화전당 부지 터파기 등 다른 공사도 지연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자칫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책임은 5월단체와 아시아문화전당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광주시 등 관련단체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별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5월단체의 주장에는 논리가 충분하다. 하지만 2년여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지 않다가 설계가 끝나 공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농성에 돌입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추진단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일부 5월단체들이 별관을 철거대상으로 지목하는 ‘광주항쟁 보존공간 활용방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확실한 증거나 증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도 별관 존폐 논란을 추진단과 5월단체간의 문제로 미뤄버린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5·18유적을 가급적 많이 보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광주의 현안인 문화전당 건립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별관 보존 여부에는 시민의 합의를 따르는 것이 옳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장기 표류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유적에는 ‘5월 광주’가 담겨 있고 문화수도에는 광주의 미래가 달려 있다. 광주시와 추진단, 5월단체 등은 토론회든 여론조사든 모든 방법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 지역사회도 논란을 하루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방 ‘현실’ 외면한 중장기 주택공급정책

정부가 최근 확정한 중장기 주택공급정책은 실망스럽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나 군사보호구역 등을 풀어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가구를 포함, 50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특히 서민들을 위해 다양하고 값싼 임대주택을 대폭 늘린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문제점이 적지 않다. 수도권에서도 ‘알맹이가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재원 조달이나 환경 파괴 등의 문제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 등 시급한 과제 해결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의 반응이 이 정도인데 비수도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광주·전남을 비롯 지방의 건설 및 주택업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지난 9월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혜택을 준데다 이번 주택공급정책도 지방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지방의 미분양주택은 심각하다. 광주·전남의 미분양 물량만 1만4천가구에 달하고 전국적으로는 15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수도권에 값싼 주택을 집중 공급하면 지방의 미분양주택은 대부분 ‘영원한 미분양’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손질해 지방주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도 빠져 있다. 주택시장을 옥죄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의 조정 등도 없다. 정부가 지방의 요구를 ‘묵살’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경제의 심각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는 지방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올들어 8월까지 광주에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 물량이 한 건도 없을까.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부터 해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無 等 鼓

축의금

결혼 청첩장이 ‘세금 고지서’로 통한지 오래다. 청첩장을 받을 때마다 신랑·신부, 또는 그들의 부모 얼굴을 떠올리면서 봉투에 얼마를 넣어야 할지 신경써야 한다. 가을철 결혼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런 부담은 더해질 수밖에 없다.

경조비 문화는 상부상조와 품앗이로 대표되는 두레 정신의 산물이다. 자신에게도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란 측면에서 꼭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궤도를 일탈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변질된 축의금 문화는 결혼식을 이해타산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축의금 액수는 결혼 당사자들과 자신과의 사회적 네트워크상 좌표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축의금은 공공연한 로비 창구로도 활용된다. 고관대작 자녀의 결혼식 접수대의 긴 행렬이 이를 증명한다. 권력의 정도가 봉투의 두께를 결정한다.

중국, 한국 등 유교문화권 국가는 전통적으로 체면을 중시해 관혼상제를 성대하게 치러왔다. 중국에서도 ‘홍바오’(紅包)로 불리는 결혼식 축의금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축의금을 내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끊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나라에서는 홀수가 길하다고 믿기 때문에 1만, 3만, 5만원하는 식으로 축의금 액수가 커져왔다. 서양에는 축의금이 없다. 대신 신혼생활에 필요한 살림살이를 선물한다.

시인 박두진은 “결혼은 깊은 안정과 조화속에서 이루어지는 무한한 변화, 청신하고 생명적인 애정의 창조형태이다”고 정의했다. 수필가 피천득은 “고답(高踏)할 것도 심오할 것도 없는 그런 대화”라고 말했다. 긴긴 인생살이에서 부부간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인연을 강조한 말이다.

지난해 국내 가정에서 지출한 경조비 총액은 7조3천억원. 가구당 연간 50만8천원꼴이다. 적지 않는 부담이다. 결혼의 계절, 각자의 형편에 충실한 축하 문화가 그립다. /오주승 사회1부장 jsoh@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